

폭동주역 비난않고 정책비판화살 유감

수백개의 상점들의 약탈과 방화로 미국의 한인 이주자들은 샌프란시스코의 중국타운 폭동이후 캘리포니아 1백년이 상 역사상 최악의 인종차별 폭동을 당했습니다. 흑인 커뮤니티는 한인타운이 고의적으로 약탈당한 만큼 캘리포니아의 백인들로부터 공격당한 적은 절대 없었습니다. 각 블럭마다 그을린, 탄 건물들은 갱들이 LA 거리를 지배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인들이 겪는 수난에 대해 미국사회는 동정과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위험한 지역에서 생명을 무릅쓰고 사업을 하는 한인들에게 깊은 존경을 보냅니다.

그래서 한인2세 변호사가 ABC Nightline에서 공화당원들과 미국의 꿈을 공격한 것은 역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녀는 부시 대통령을 「그의 정책」 때문에 공격했고 바로 그 정책 때문에 약탈자들이 폭동을 일으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직 대통령만 비난했습니다.

전국 TV를 통해 미국 중간층들에게 의사를 전달할 수 있었어야 했던 이 귀중한 기회에서 이 변호사는 약탈자는 비난 안하고 정부의 무상원조 부족을 책망함으로써 인종차별주의 정치가들과 공명을 표명하였습니다. 또 한명의 과격한 한국계 미국 변호사는 부시 대통령이 사회적 문제들을 충분히 처리하는데 실패했다고 주장하면서 부시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실지로 그가 취임했을 때와 비교해 부시 행정부가 내년에 저소득자들에게 쓰여질 비용을 7백억달러나 증가시킨 사실을 모르고 하는 소리였습니다.

버클리대학 한인교수는 미국의 꿈은 『오직 빈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겁니까? 이런 시기에 이러한 좌경 이념이 나오고 있는 겁니까? 왜 가해자들은 비난 안하고 미국 문화를 책망하는 겁니까? 왜 흑인좌경 이념에 공명을 표명하고 약탈을 「반란」이라고 부르고 죄없는 자들을 폭행한 악덕 갱들을 칭찬하는 겁니까? 설상가상으로 급히 통과되었다는 소위 로스앤젤레스 비상복구 법규는 흑인동네의 한인소유 사업체들의 소멸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흑인 시의원들인 마크 리들리 토머스와 리타 월터스가 제안한 이 법안은 교묘하게도 모든 주류 마켓과 스와임을 계획국에 떠맡겨 미룹니다. 그 의미는 LA폭동의 90% 피해자인 한인 상인들은 그들의 사업체를 영원히 잃게 되는 겁니다.

한인 2세 좌경파들은 어디 있습니까? 이들의 동맹자들은 고의적으로, 그리고 합법적으로 수천명의 한인 가족들을 약탈하고 있습니다. 이들 가족의 절약과 고된 노동은 파산선고와 수년간의 힘든 노동의 전멸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시 정치가들은 폭동자의 행위를 용서해줄 뿐만 아니라 한인 소유주들의 재건을 하는데 집이 되는 긴 공청회를 법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손 스틸·변호사〉